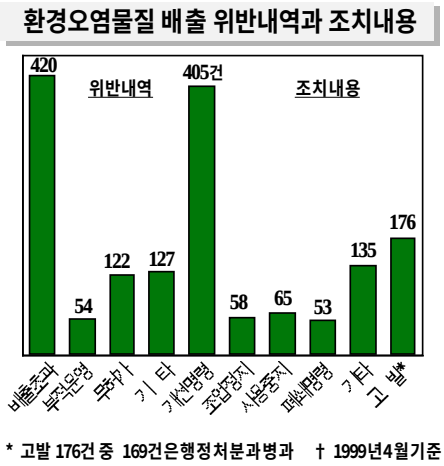
# <환경부> 환경오염업소 723개소 적발




환경부는 1999년4월 전국 각 시 · 도 및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대기 ·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를 발표했다.

1만153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, 7.1%에 상당하는 72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, 의법 조치했다.

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해 적발된 코오롱F&T, 세원알미늄, 남해화학, 태광, 신원JMC, 중앙염색가공, 동부정밀화학 등 5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거나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.

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· 운영해 적발된 영창섬유, 팔팔기업, 원광섬유, 보성섬유 등 122개 사업장은 해당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했다.

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한킴벌리 김천공장, 한국석유공업, 라파즈벽산석고, 지왕산업, 국도정밀화학, 원덕제지 등 420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.

<화학저널 1999/6/14>